

## 정부, BASF 합브레이트 회장에 수교훈장 수여

BASF 본사 회장인 위르겐 합브레이트(Jurgen Hambrecht) 박사가 한국정부로부터 한국·독일 양국간의 교류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교훈장 승례장을 수여받았다.



5월20일(현지시각) 베를린 현지에서 진행된 서훈식에는 권영민 독일대사, BASF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책임이사 안드레아스 크라이마이어(Andreas Kreimeyer) 박사, 한국BASF 김종광 회장 등이 참석했다.

1954년 서울에 판매사무소를 열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BASF는 50년이 넘도록 한국시장에서 활동을 전개해온 노력과 합브레이트 회장의 한국에 대한 애정이 인정받아 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브레이트 회장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BASF 동아시아 초대 사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요 결정을 책임지는 이사회 멤버로서 한국BASF의 비즈니스 확대 및 독일과의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화학저널 2005/05/24>